

## 48. 용접, 사상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중심성 장액성망막박리

성별      남      나이      43세      직종      용접/사상공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박○○는 1989년에 자동차제조 사업장 단조부에 입사하여 약 6년 간 근무하였고, 1995년 4월부터는 용접, 그라인더 작업 등을 했는데, 2005년 3월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과 장액성 망막박리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박○○에 의하면 품질관리부에서 제품에 대한 지적된 문제점들을 수정하기 위해 그라인더로 갈고, 드릴 작업을 주로 하는 것이었는데, 천장을 쳐다보면서 그라인더나 드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눈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와서 동료가 빼어 주는 경우가 흔했다고 하였다. 또 간헐적이기는 하나 용접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시동 공정에서 각종 오일이 주입되어 오지 않은 경우 부동액, 브레이크 오일 등을 오일 건으로 주입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위해서는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수동으로 주입을 하며, 엔진이 과열되는 순간 각종 오일이 분사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얼굴과 눈에 부동액이나 오일이 자주 튀었고 그때 마다 눈이 매우 따갑고 쓰라렸다고 한다. 근로자가 근무했던 버스 차체 용접 작업에 대한 2004년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용접흠 0.85 -1.44 mg/m<sup>3</sup>이었고, 카운터 의장 작업에서는 소음 85.2 dBA와 혼합유기용제 노출수준이 0.185로 노출기준 초과 물질은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박○○는 J공장으로 이전할 때부터 눈이 까칠하거나 침침한 증상이 약간 있었지만 심하지는 않았는데, 2004년 10월 눈이 침침해 지는 증상을 특히 심하게 느꼈고, 작업 중 헛손질을 하는 등 불편한 증상이 심해져서 여러 안과를 방문하였다. 2004년 12월 30일에는 작업 중 부상으로 경추부 염좌와 좌측주관절 외상과염이 발생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요양을 시작하여 휴직 하던 중, 눈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방문한 안과의원에서 2005년 3월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장액성 망막박리로 진단되었다.

**4. 결론:** 이상의 근로자 박○○는

- ① 특진 결과 중심성 장액성망막박리로 진단되었는데,
- ② 이 근로자가 취급한 부동액과 브레이크 액의 성분에서 중심성 장액성망막박리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찾지 못하였고,
- ③ 작업 중 노출 되었을 수 있는 용접 광선 역시 중심성 장액성 망막박리의 원인으로 알려진 바 없으며,
- ④ 작업 스트레스가 이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근로자의 질환은 작업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